

최근의 國際 LPG 市場 동향

大韓石油協會 調查課

I. 世界의 LPG 공급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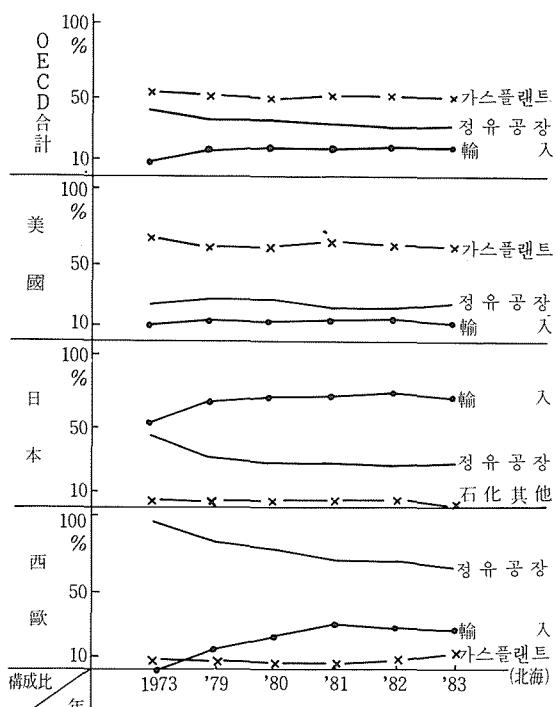
70~80년대의 石油정세변화는 LPG 수급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그 하나는 메이저의 힘이 후퇴했다는 것이다. 사우디로 부터 수출되는 LPG는, 종래 世界시장調整기능을 갖고 있던 메이저의 손을 벗어나 그 판매주도권이 產ガス國 자신의 손으로 옮겨졌다. 이러한 공급구조의 변화는 LPG 공급 및 가격兩面에서의 전망을 不明確하게 하였다. LPG의 最大輸入國인 日本의 경우 LPG 수입량의 공급자構成이 메이저를 통한 것은 76년에 87%나 되었으나 최근에는 30%로 낮아지고 있다.

둘째의 변화는 OPEC의 힘이 후퇴했다는 것이다. 石油시장에서의 OPEC세이는 대폭 줄었으며, 原油가격 유지를 위해 사우디를 생산조정자로 하여 감산으로 대응해 왔다. 사우디의 原油감산은 隨伴가스의 부족을 일으켜 LPG 공급 사감으로 이어졌다. 불안정한 요인이 더욱 추가된 것이다.

세째의 변화는 B-C重油 중심의 石油수요가 대폭 축소되었다는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精油工場에서의 LPG 생산이 감소되어 왔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精油분해설비의 도입이 촉진되자 LPG收率이 향상되었다는面도 있다.

주요 소비국의 LPG 공급구조 특징을〈그림-1〉에서 보

〈그림-1〉 OECD地域別 LPG 供給構造(構成比)



〈資料〉 日本…通産省資料、西歐…OECD…Annual Oil and Gas Statistics.

美國…Porten & Partners, Inc ('83年은 同社의 推計)

면, OECD 全體에 대한 精油工場, 天然가스, 수입등 3 가지의 공급구성비가 각 31%, 52%, 17%이었다(1982년 실적). 이를 지역별로 보면 美國에서는 同比率이 각 25%, 60%, 15%이며 西유럽은 각 65%, 10%, 25%이다. 이에 비해 日本은 LPG 공급선이 精油工場 25%와 輸入分 75%로 구성되어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나라는 해외에서의 수급변동이 국내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반면, 西유럽의 공급구조는 그러한 영향이 적다. 歐美쪽은 앞으로 수입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다음에, 輸入地域別구성비를 보면 日本에서는 中東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이 85%나 되고 특히 사우디가 50%나 차지한다. 이러한 偏在性은 사우디의 LPG 공급삭감이 日本국내시장을 공급불안정에 쉽사리 빠뜨린다는 측면을 내포한다.

西유럽도 사우디의존도가 45%나 차지하지만, 그것을 포함한 中東의존도는 58%에 불과하여 나머지는 아프리카(20%) 및 소련·東歐(10%)에서도 輸入한다.

또한 西유럽은 北海에서의 LPG 생산분이 증대되어 그것의 공급률이 10~15%를 차지한다.

美國의 경우는 캐나다로부터의 輸入分이 총 LPG 수입의 70%수준이고 사우디로부터는 6%에 지나지 않는다. 중장기적으로는 美國이 天然가스로부터 제조해내는 LPG 생산량은 감소경향을 보일 것이므로 캐나다가 추가 공급하지 못하면 他地域에서의 수입량이 늘어나게 된다. 그렇게 되면 日本의 LPG 수입량이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II. 產油國의 LPG 생산

현재 사우디가 최대의 LPG 수출국이며, 근래에는 알제리와 北海가 수출량이 많아지고 있다. 세계의 LPG 輸出플랜트 능력은 4,650万톤(1983년), 앞으로 예정된 확장계획분이 약 2,000万톤, 그것이 예상대로 추진되면 1990년에 연간 6,650万톤의 能力으로 된다(그림-2참조).

중장기적으로 LPG 수급은 공급파악 기미라는 예측이다. 확장계획중 큰 것은 이라크, 알제리, 멕시코에 있는데 이 3개국이 全追加能力의 66%를 차지한다. 물론 이들 확장계획은 재정사정이나 수요동향에 따라 지연·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LPG가 他연료에 비해 가격경쟁력을

보유하고 石油化學原料 및 電力用 등 非프리미엄의in 수요를 대폭 신장토록 하려면 시장환경구조가 더욱 整理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플랜트능력이 확장된다 해도 그곳에서 실제 생산되는 LPG量은 원료가스 공급량에 左右된다. 즉 LPG의 주요供給要因은 中東지역 특히 사우디의 原油생산량에 달려 있으며, 또한 알제리의 非隨伴가스(天然가스) 생산량에 영향을 받는다.

사우디에서는 天然가스 이용률을 높이려고 쿠프層에서의 非構造性가스 回收를 포함한 「綜合的ガス利用計画」(Master Gas System)을 추진해왔다. 이 시스템에 의해, 종래는 輕質原油 중심의 生产체계이던 것이, 中質·重質原油와 非構造性가스가 새로운 LPG原料화하는 기술발전에 따라 原料공급체계가 융통성있게 변화되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역시 原油의 生产수준에 있다. 사우디의 生产量이 85년에 저조하였고 그런 수준이라면 原料가스 供給源이 다양화되었다 하더라도 단기적 LPG 공급부족이 발생할 듯 하다(사우디 生产油量을 400万b/d로 試算했을 경우임). 또한 原油의 유종별 生产구성이 LPG收率이 많은 輕質原油로 부터 그收率이 적은 中·重質원유쪽으로 서서히 이행하고 있는 바, Arabian Light(輕質) 生产구성비가 20% 감소할 때 그에 따라 LPG 生产量이 10%정도 감소한다는 것도 마이너스요인이다. 뿐만 아니라 非隨伴가스가 原料화되었으므로 그로부터 제조되는 LPG量은 작아진다. 그러므로, 앞으로 LPG 공급력의 최대포인트는 隨伴가스 및 輕質原油의 生产量에 달려 있다는 점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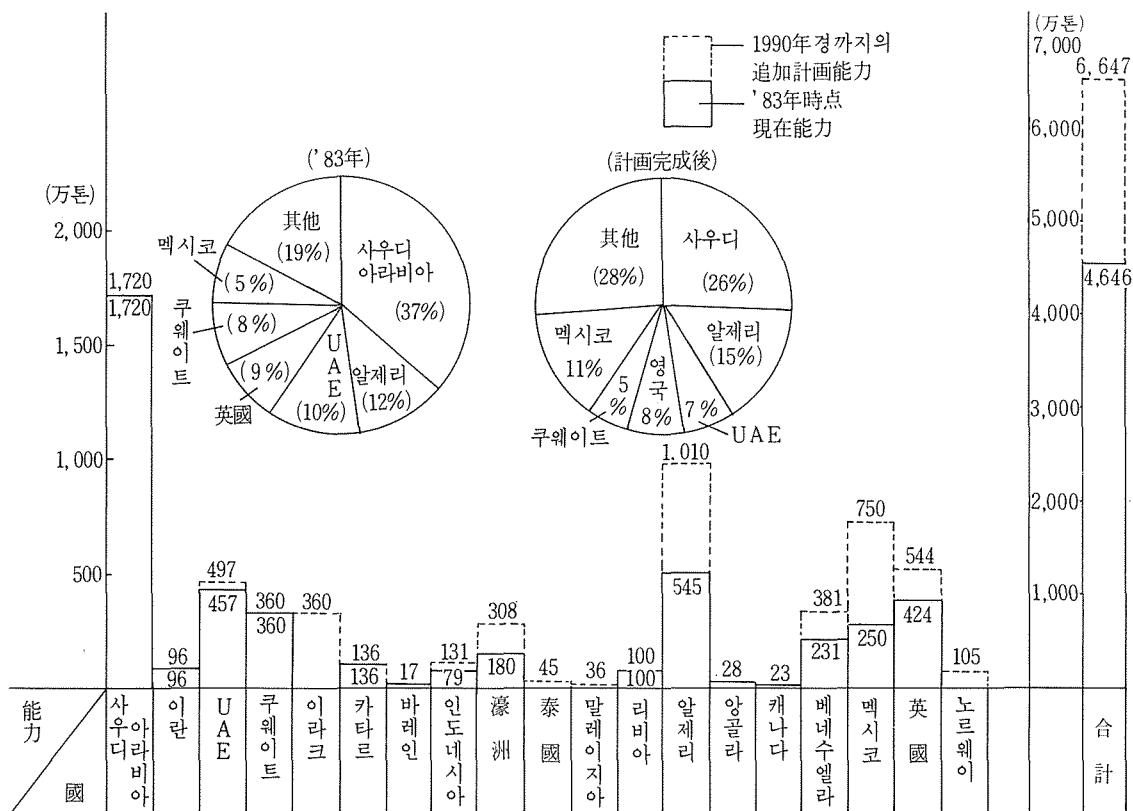
〈알제리의 LPG공급 확대〉

지금 세계의 LPG 업계는 알제리의 生产능력확대가 국제교역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즉 中東제국의 LPG 수출능력은 原油생산振幅에 따라 좌우되지만 非構造性가스를 原料로 하는 알제리의 신규플랜트는 세계시장에 안정공급력을 주게 된다.

알제리의 LPG 生产확대는 또한 LPG 무역에 있어서 사우디에 다음가는 세력을 형성한다는 의의가 있는바, 日本은 이미 供給源 多角化를 위해 업체들이 공동수입할 것을 알제리와 협의중이다.

현재 LPG 국제무역에서 사우디의 공급률은 60~70%

〈그림-2〉 世界의 LPG 輸出플랜트 能力



〈資料〉 porten & partner社

로 높다. 그래서 사우디는 price leader 노릇을 함으로써 가격경쟁원리가 통할만한 여지를 적게 만들고 있다.

한편 알제리는 국가收入이 가스 판매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서 LPG 시장 개척에 적극적이다. 輸出価格에 있어서도 페르사灣岸 산유국들을 경쟁不安에 몰아넣고 있으므로, 이러한 요인들은 앞으로 LPG 무역을 보다 경쟁적인 국면으로 변화시키게 된다는 예상이다.

알제리의 LPG는 주로 西유럽의 石油化學원료인 나프타를 LPG로 대체시킬 것으로 보인다. 西유럽 石油化學工業의 LPG 수요는, 나프타가격보다 낮을 경우, 현재의 300万トン/年으로부터 500万~600万トン/年으로 크게 증대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지금 西歐에서는 사우디가 최대 LPG 공급국인데, 알제리가 판로 확장을 할 때에 사우디가 그 市場을 침입해 넘겨줄리는 없다. 따라서 LPG 수출능력이 확장된 나라는 사우디에 對抗세력으로 나타

나고, 드디어 경쟁원리가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西歐에서는 北海産 LPG가 늘어날 전망이다. 北海는 西歐의 LPG 공급중 15%를 차지해 他地域수입의존도를 낮추는데 큰 역할을 한다. 北海는 西歐 LPG 마켓의 중심에 위치하여 그 가격은 시장實勢를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석유화학원료가 나프타로부터 LPG로代替될 수 있는 競合관계에 큰 영향을 준다.

즉 사우디와 알제리는 北海産 LPG와 경쟁하게 되는 것이다.

北海産 LPG의 무역량이 확대되면 마치 北海原油가 OPEC 油價 인하를 유발했던 것처럼, 그와 비슷한 현상이 LPG에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국제무역의 확대에 따라 사우디가 주도하던 가격形成체계이 주요소스(Source)間의 가격결정 相互영향력 증대체계으로 바뀌어질 것이다. 한편 北海LPG 가격의 중심노릇을 해왔던

BNOC(英國國영石油會社)가 85년 3월 解体됨에 따라 LPG가격이 불안정해질 염려도 있었다.

그러나 BNOC대신에 Shell社가 가격조정役割을 맡게 됨으로써 여전히 원활한 시장運營이 되고 있다. 앞으로北海 LPG 시장에서 메이저의 지배력이 커질 듯 한데, 그것이 向后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III. 世界의 LPG수요구조

UN통계에 의하면 82년도 세계 LPG 소비량은 1億2,457만톤으로 73년부터의 연평균증가율이 2.7%이다. LP G 수요는 두번에 걸친 특히 제2차 石油危機를 계기로 石油代替연료로서의 가치가 크게 평가되었다. 수요증대는 主로 西歐 및 日本의 석유화학 원료로서 또는 日本등의 發電用과 都市ガス用으로 인해 急增한 것이다. 그러나 79/80년, 82/83년에 걸쳐 수요減小가 나타났듯이 이 연료는 他연료와의 경합관계가 깊어서 LPG 가격 상승은 그 소비량감소로 직결된다. 즉 LPG 소비分野는 가정·상업용 등 價格彈性值가 낮은 프리미엄性 수요部門과, 석유화학原料 및 發電用 등 價格彈性值가 높은 非 프리미엄性 수요부문으로 大別할 수 있다.

이제까지는 가정용 중심의 프리미엄性 수요 쪽에서 신장율이 높았으나, 최근의 세계 LPG 시장은 그 수요신장의 중심이 非프리미엄性 수요쪽으로 이행하고 있다. 따라서 가격이 높게 上昇하면 LPG 수요가 프리미엄性需要에 限정되고, 가격이 하락하면 非프리미엄性 수요를 자극하여 輸入量이 증대하게 되는 구조이다.

LPG는 無公害연료이며 代替性이 높아서 소비량의 증가를 가져왔다. 그러나 근년에는 공급 및 가격不安定성이 나타남으로써 代替에너지로서의 評價가 낮아졌다. 民生用 LPG 수요는 신장율이 鈍化되는 경향을 보이고, 산업용 LPG 수요는 신장율이 커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주요시장의 LPG 소비 구조를 보면(82년) ▲西歐 지역에서 가정·상업용 46%, 공업용 20%, 석유화학原料用 17%, 자동차용 12%, 都市ガス原料用 5%, 精油工場연료用 2%이며 ▲日本에서는 가정·상업용 36%, 공업용 20%, 석유화학原料用 14%, 都市ガ스用 12%, 자동차용 11%, 發電用 7%이다. ▲그리고 美國에서는 가정·상업용 34%, 精油工場연료用 26%, 석유화학原料用 17%, 자동차용 9%, 都市ガ스用 8%, 공업용 6%이다.

IV. 세계의 LPG需給과 貿易현황

LPG 교역은 大別하여 볼 때, 사우디를 중심으로 한 中東지역과 캐나다가 주요供給源으로서 日本과 西歐는 中東依存型이고 美國은 캐나다依存型인 대체로 무역량이 확대추세이다.

같은 지역내 거래를 제외한 장거리 海上貿易量은 현재 年間 1,700만톤 정도로 추정되며 그중 7割가까이를 日本이 輸入하고, 全海上무역량의 7割정도는 사우디가 輸出한다. 이 해상무역량은 세계 LPG 총생산의 15% 이내인데 시장 동향變化에 따라 변동하기 쉬운 구조이다. 또한 域内거래를 포함한 LPG 무역에는 다섯가지의 큰 흐름이 있다. 즉 ① 中東→日本 ② 西歐諸國間 ③ 캐나다→美國 ④ 中東→西歐 ⑤ 濟洲→日本의 형태이다.

이 가운데서, 中東→日本間의 무역이 전체의 40%선이다. 1979년 이후 中東→西歐間의 무역이 현저히 신장되자, 中東에서 경합하는 日本으로서는 시장이 타이트해지는 요인을 더 많이 안게 되었다. 그러나 北海 및 알제리의 수출량이 增大됨에 따라 최근의 西歐지역은 中東으로부터의 수입량이 줄어들었으며, 이 경향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Purvin & Gersty社의 예측으로는, LPG 수급균형이 생산능력 확장을 전제로 할 때 1990年 時點에서 1,450만톤(불확실 요인을 加味하면 700만톤)의 공급余力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이 여력을 흡수하려면 LPG 가격이 热量ベ이스로 原油가격의 90%以下수준에서 설정되어야 하며, 무역량도 지금의 1.6倍규모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LPG 輸入對象國을 다변화하려 할 때 有望한 供給源은 알제리, 濟洲, 말레이지아, 인도네시아, UAE 등이다.

日本의 경우, 〈表-1〉과 같이 이들 5개국中 인도네시아의 LNG로부터의 LPG 회수계획 및 알제리를 제외하면 각국의 輸出 가능량이 연간 30만~40만톤에 불과하지만, 5개국 전체의 합계는 매우 많아져서 日本의 사우디의존도가 현재의 53%보다 10포인트 정도 낮아질 수 있다. 인도네시아의 LNG로부터의 LPG 회수계획이 실현되면 사우디의존도가 더욱 낮아질 수 있다. 문제는 LPG 회수로 말미암아 LNG의 열량이 저하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인도네시아側과 日本의 都市ガス會社 및 電力회사들 간에 조정이 추진되고 있는데, LNG熱量問題가 어느 정도로 조정되는가에 따라(그 LPG 수입규모는 210만톤

〈表-1〉 有望한 新規LPG輸入源(일본의 경우)

수출개시时期	輸出國	공급자	가스源	수출 가능량 (만톤/年)	備考
84.9	濠洲	SANTOS 그룹	쿠퍼바이스 Gas田	45	가격이 中東보다 높다.
84年末	알제리	SONATRACH	핫지루노르, 핫지놋사와드 Gas田	100 ~ 300	회사共同수입분 25~30万톤, 운임이 50% 높다.
85年初	말레이지아	PETRONAS	트렌가누油田	30	原油와의 패키지, 장차 수출력 감퇴,
85~86	인도네시아	PERTAMINA	정유공장 Gas, 단준, 와반에서 냉凍하여 出荷	40	정유공장가스이므로 부탄分이 많다. 프로판 35 / 부탄65
86年	UAE	SHARJAH	샤르자 Gas田	30	호르무즈쪽에 있음, 확인된 Gas田임, 콘덴세이트를回收.
87年	인도네시아	PERTAMINA	아룬(180만톤) 바다크(30만톤) 의 LNG 플랜트에서 LPG를回收	210	日本이 수입하는 LNG의 열량을 低下시킨다는 문제가 있다.
87~88	濠洲	Shell/BP/BHP	노드란친 Gas田	30	내수분 증가로 점차 수출력 감퇴.

/ 年 정도), LPG 수출 가능량도 변하게 된다. 수출여력이 많은 알제리에 대해서는 共同輸入方式을 교섭중인데 수송코스트가 높아서 경제성문제가 대두된다.

이 경제성 평가문제는 LPG輸入先다면화에 있어서 主要爭點이 된다. 極東지역으로서는 濠洲 및 東南아시아 등 비교적 가까운 곳의 新規 供給源이 개발되면 좋겠지만, 거래규모나 공급지속성 측면에서는 LPG 생산의 중심이 앞으로도 역시 中東이 될 터이므로 경제성(輸送코스트)을重視할 경우 中東의 존도를 낮추기가 곤란한 것이다. 즉 증산이 예상되는 알제리, 北海, 멕시코등 極東에서 멀리 떨어진 나라로 부터 LPG를 수입해 오려면 어느정도의 경제성은 회생(감소)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에너지 안정확보와 코스트面에서의 균형문제로 귀착된다.

엄성 수요의 증대, 他에너지와의 競合, 供給源의 다변화 등으로 말미암아 LPG 시장은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LPG 가격수준은 그 공급량이 在來수요(프리미엄 需要 = 가격이 높아져도 常存하는 수요)에 알맞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 왔다. 79년 및 83년처럼 재래수요에 비해 공급량이 부족하면 상승압력이 강해지고 逆으로 공급과잉 氣味가 보이면 석유화학용 등 非프리미엄性수요를 자극할 필요가 생겨서 (81 / 82년처럼) 가격하락압력이 강해지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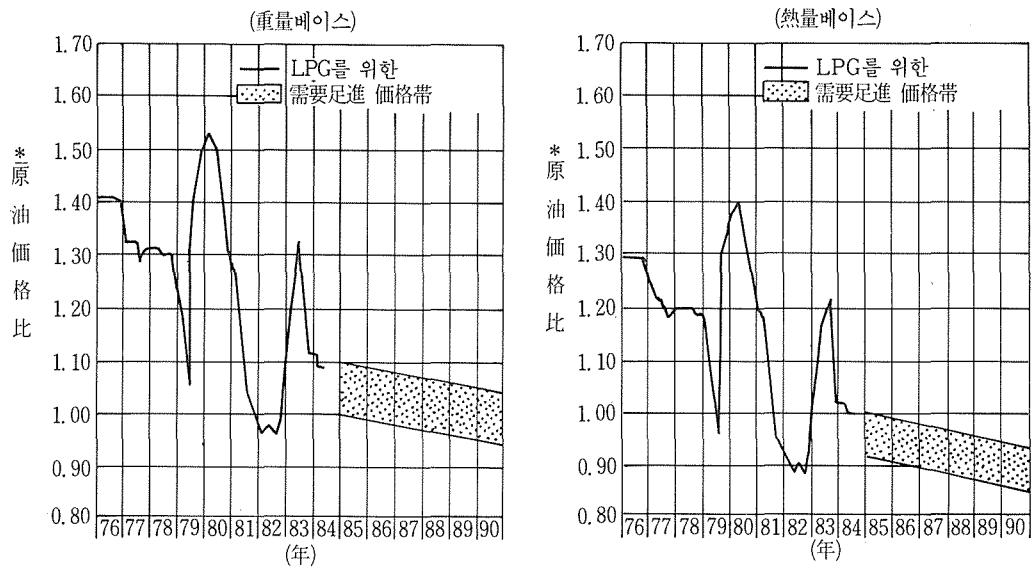
금후의 가격동향도 공급량과 在來수요와의 상대적 균형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로서는 불확실한 요소가 다분하지만, 新規프로젝트에 의한 LPG 생산 증대가 예상되기 때문에 中·長期的인 基調는 공급량이 在來수요를 초과하여 공급과잉化 할 전망이다.

따라서 LPG 가격은 석유화학용 등 非프리미엄性 追加 수요를 자극하기 위해 결국 原油価보다 10% 낮은 수준으로 下落해야만 할 것이다(그림-3참조)*. 실제의 LPG

V. 세계의 LPG価格

LPG 시장환경의 변화는 사우디의 price leader 役割에 미묘한 영향을 주어 왔다. 시장성장율의 鈍化, 非프리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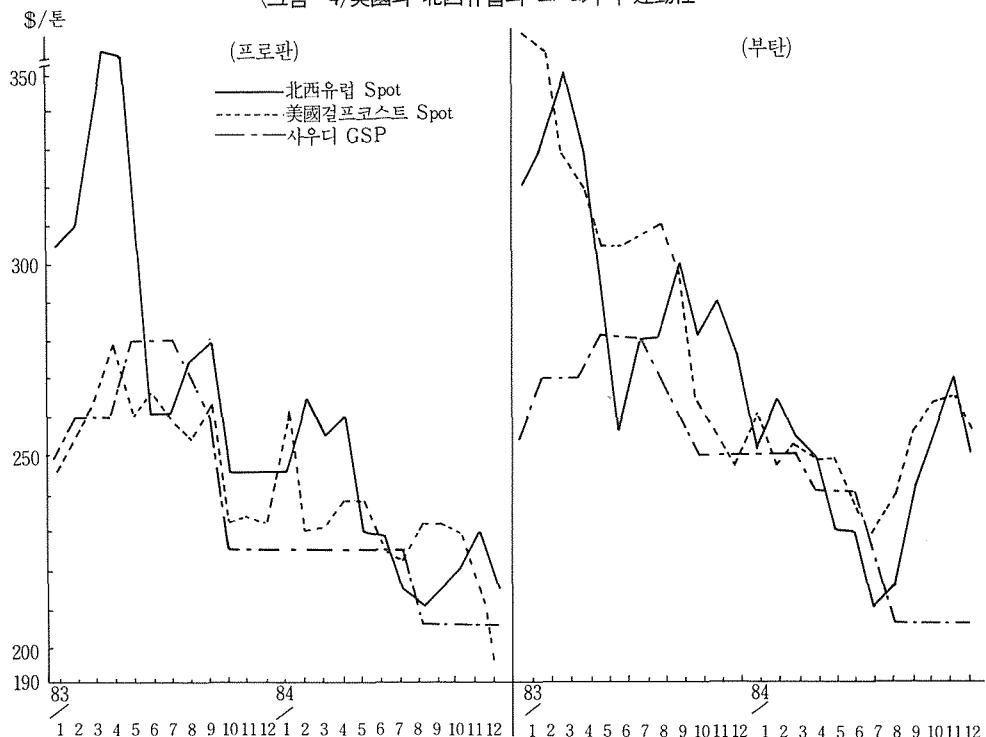
〈그림-3〉 LPG와 原油의 가격관계*



〈資料〉 Purvin & Gertz社

*註 $\frac{\text{LPG 평균가격 (페르사만, FOB)}}{\text{Arab Light 原油가격}}$

〈그림-4〉美國과 北西유럽의 LPG가격 運動性



가격수준은 原油와의 热量ベイス로 83년초의 12%선에서 85년초에는 90%정도까지 저하(하락)하였다.

사우디의 PETROMIN 내부에도 수요촉진형 가격 정책을 지지하는 움직임이 있는 듯 한데, 原油와 마찬가지로 LPG 가격 결정에 있어서 여러가지 방안이 검토될 것이다. 즉 가격을 낮추어 수요를 키울 것인가, 아니면 수요 부진을 甘受하면서 가격유지노력에 애태울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이다.

北海產과 경합하는 LPG 가운데 西歐시장을 겨냥한 알제리와, 이미 日本이라는 큰 프리미엄性 시장을 확보하고 있는 사우디와는 아무래도 가격수준에 대한 의견차이가 나타날 것이다. 歐美시장에서는 LPG 스파트 가격이 휘발유, 나프타, 軽油의 가격동향에 따라 결정되며 유럽과 美國의 스파트 시장은 연동한다. 근래에는 사우디公式価格도 스파트 시장에 連動하는 경향이 많아졌다. 그러므로 금후 歐美의 스파트市場 가격동향이 사우디의 LPG 公示価格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그림-4참조).

V. LPG流通構造

美國 유통기구의 특징은 LPG 파이프라인 수송과 거대한 地下저장능력에 의해 소비의 季節格差를 잘 균형잡는다는 점이다. LPG의 太半이 국내생산이라는 점도 있어서 파이프라인과 지하저장에 의한 효과적인 공급시스템이 확립되어 있다. 이에 비해 日本은 太半을 수입에 의존하고 그 저장능력도 작아서 수급불안정화 하기 쉽다. 또한 美國의 판매형태는 가정용에 대해서도(日本의 bom-be容器방식과 달리) bulk방식이 중심이므로 큰 메리트를 갖고 있다.

西유럽의 유통시스템은 LPG 파이프라인 수송은 하지 않고, 비교적 日本과 유사하다. 공급량의 65%가 정유공장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석유회사에 의한 系列化 유통이며 그 단계도 적은 편이다. 유통주체를 보면 대체로 政府系기업이 全市場의 30%라는 큰 셰어를 차지하고 메이저가 40%, 각지역 LPG 전문회사가 나머지 30%의 공급을 담당하고 있다. 시장규모가 작은 편이므로 비교적 소수의 기업이 높은 販賣量을 占한다는 특징이 있다.

한편 日本에서는 수입량증대에 맞추어 탱커의大型化, 受入基地의 확대, 2次基地整備 등을 해 왔다. 그러나 유통면을 보면, 產業用 LPG는 대수요처가 적기 때문에 유

통기구도 簡略化되어 있으나, 가정·상업용 LPG는 중간에서 봄베容器에 充填작업이 介在되고 거래 單位가 작으면서 需要家는 많기 때문에 유통경로가 多段階로 된다. 기본적 흐름은 生产·수입업자→도매업자→소매업자→소비자의 4 단계이다. 이를 다시 복잡하게 분화시키는 요인은, 도매단계에서 규모의大小 그리고 도매기능과 소매기능의 併存형태가 파생하기 때문이다.

더우기 소규모 유통업자가 도매단계 및 소매단계에 共히 많기 때문에 이러한 영세성과 다단계성이 유통의 非效率化를 가져오며 末端소매가격을 높이는 요인으로 된다. 美國과 日本의 LPG 유통단계 경비를 비교하면 日本이 66%, 美國은 32%정도이다. 그래서 日本은 현재 중소기업 근대화촉진법의 적용을 받아 LPG 유통의 합리화를 추진중이다.

한편 국내저장시설이 크지 못한 日本은 内外의 수요변동에 대해 유연하고 융통성 있게 대응키 어려우므로 그 영향이 국내 시세에 나타나는 面도 있다. LPG 비축이 추진됨에 따라 受入基地와 저장능력이 확장되고 있으나, 在庫 패턴을 보면 美國의 경우 항상 재고량이 수요량을 상회하고 있음에 비해 日本은 겨울철 재고가 1개월분 이하로 낮은 수준이다. 그런데 최근 美國에서는 LPG 在庫가 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생산자 및 판매업자가 코스트 輕減을 위해 在庫수준을 낮추어가는 것이다.

西歐에서는 석유화학原料用을 중심으로 LPG 수요가 신장되는 가운데 종래의 보완적 취급으로부터 이제는 안정 확보를 중시하는 쪽으로 변해 受入基地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금후 추가수요가 예상되는 석유화학原料用 및 자동차용의 증대에 대응하여 알제리 등으로부터 수입량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때문이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최근의 불안정한 LPG 시장을 반영하여 특히 건설코스트 상승도 요인이 되어 신규투자에 신중한 검토를 하는 측면을 보인다.

VI. 日本 LPG市場의 문제점

첫째, 수입의존도가 歐美에 비해 극히 높다는 것이다. 世界第2의 LPG 소비국인 日本의 국내생산비율이 25%에 불과하다는 상태는 불안정하여 海外시장동향이 직접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精油分解設備 확충에서 LPG 공급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概算해보면

6 LPG소비분야는 가정·상업용등 價格彈性值가 낮은 프리미엄性 소비부문과, 석유화학 원료 및 발전용등 價格彈性值가 높은 非프리미엄性 수요 부문으로 大別할 수 있다⑨

LPG收率 1%향상은 연간 100万톤의 증산이 될 수 있다.

둘째, 수입 대상국이 中東지역에 偏在되어 있다. 사우디 한 나라가 공급삭감하면 국내 공급이 즉각 不安해진다. OPEC의 산유량 감축내지 규제로 인해 사우디의 LPG 생산량이 감소되어 왔으며, 세계에서 가장 危險지역인 中東의 LPG를 많이 수입한다는 것은 不安定한 상황이다.

세째, 수입체제에 문재가 있다. 무질서한 수입이 Spot 가격을 상승시킴으로써 사우디의 GSP(公式価格)引上에 연결되는 일은 크게 反省될 일이다. 사우디에서 수요의 절반이상을 수입하면서도 각회사가 個別교섭하는 現体制로는 수입국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어려운 것이다.

네째, 국내 在庫能力 강화가 필요하다. 취약한 공급구조와 유사시 즉각 他연료로 代替하기 힘든 LPG 수요분야를 많이 갖고 있으므로 備蓄이 重要하다. 비축에는 막

대한 비용이 필요하므로 공급체제를 정비하여 적정利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정된 시장기반을 확립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비축에 대한 政府助成措置의 拡充이 요망된다.

다섯째, 유통구조가 복잡 多段階라는 점이다. 더우기 판매업자가 영세하고 過多하므로 流通コスト가 높아진다. 그러므로 공동화내지 協業化를 실현하여 판매규모拡大 및 유통을 간소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체적으로 元賣·도매 단계에서는 과당경쟁이고 소매단계에서는 경쟁이 적다는 것은 개선되어야 할 문제이다.

여섯째, 긴급시의 對策이 미비된 점을 들 수 있다.

LPG의 특수한 유통·소비형태로 인해 완벽한 流通시스템을 구축하기는 곤란한 狀況이겠으나 사전에 그러한 시스템을 연구하여 備蓄增強對策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旬刊 石油政策 86. 4. 5)〉

